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제32권 19호(나해) 2012·4·1

[묵상]



갈매못<대전교구,충남 보령시 영보리 소재> 서해안 바닷가에 위치한 갈매못은 병인박해 때 다블뤼 주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순교의 피를 봉헌한 곳이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시며,
정해진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시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분을 고소하는 이도,
팔아넘길 이도,
매질하며 조롱하는 이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도,
십자가형을 선언할 빌라도도 필요합니다.

한편,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길에 걸음을 깔아드릴 이도,
손에 팔마 들고 환호하는 이도,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도,
십자가의 무게를 들어드릴 시몬도,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할 백인대장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좋은 역할에 쓰시겠다면
더 없이 행복하겠습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저녁미사(사순시기)	오후 7: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미사지향

토 요 특전미사	(연)권순봉 요안나, 이만복 로사, 한동호 & 김두오 체칠리아, 곽명희 마리아
	(생)김현실 야네스
주 일 낮 미사	(연)이호준 프란체스카, 오진 메드로, 김완테 다미아노, 엄익찬 안토니오, 이상일 요셉, 박영준 안토니오, 고준희 제임스, 김명숙 요안나, 한삼탄 요셉, 민소예 모니카, 임은섭 도로테오
	(생)오영섭 미카엘 & 오창애 안나 가정, 임연조 마오로, 이경용 야코보 & 이윤조 클라라, 전안나 & 전복래 데레사 가정, 권오상 마오로 & 권순길 체칠리아 가정, 최금옥 말찌나, 송마이클 & 송미카엘라, 민원희 안나의 은인들, 김기준 안셀라, 김봉길 마오로 & 김제희 모니카, 현장환 안토니오, 사목회 상임위원들, 문밖티스나 수녀, 이장환 파르메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0,4-7

화답송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 하여 저를 버리셨나이 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썰 수 있게 되었나이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뿔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옵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2,6-11

복음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환호송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수난 복음 마르코(Mark) 14,1-15,47<또는 15,1-39>

영성체송 아버지 이찬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54	154	
봉헌	259	259	259
성체	304	304	285
파견	189	189	15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

마리아, “하느님 말씀의 어머니”이며 “믿음의 어머니”

그뿐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안에
서 하느님의 활동이 언제나 우리의 자유를 포함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
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도적, 사목적 활동 역시, 우리 안
에서 작용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도록
마리아에게서 배우지 않는다면 결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입니
다. “교회 신앙의 모범이며 원형이신 마리아께 신심과 사랑으
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기도하며 경청하는 태도에서나 사
명과 선포를 위한 관대한 투신에서나 말씀에 대한 교회의 관
계에서 구체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결정적인 중
요성을 갖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안에서 온전히 말씀에 따라 형성된 삶을 보
면서 우리는, 우리 역시 믿음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르
심을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안에서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우리에게, 신앙을 지닌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자
신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수태하고 출산하는 것이라고 말합
니다. 육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단 한 분이시지만,
믿음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의 열매이십니다. 83)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매일 하느님의 말씀
을 들을 때와 성사들을 거행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교회, 성경 해석학의 본래적 장소

29).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에서 다룬 주제들 가운데 이제는
교회안의 성경 해석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말씀과
믿음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가, 진정한 성경 해석은 마리아의
“예”를 원형으로 하는 교회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이와 연관하여 보나벤투
라 성인은, 믿음 없이는 거룩한 본문을 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앎으로부터, 마치 샘에서와 같이 성경
전체에 대한 확실함과 이해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경 전체의 불빛이며 문이며 기초인 그리스도
에 대한 믿음 없이는 아무도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을 인용하면
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치유하시는 믿음의 내적 은총 없이
는, 복음의 문자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계속>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교회에서는 오랜 전통으로 부활 전 1주일을 성주간이라고 하여 거룩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난 복음은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수난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주님께서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눌러 씌어져 이미 기력이 쇠진해진 상태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느라고 연거푸 쓰러지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고통, 이러한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채찍에 맞아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살갗을 파고드는 가시의 고통? 십자가에 매달려 숨통을 조여오는 죽음의 고통? 주님의 가장 커다란 고통은 이런 육체적 고통이 아닌 정신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이런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버림받거나 배신 당하는 소외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로부터 돈 때문에 배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스승을 버리고 저 살기 바쁘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잔,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잘 따랐으며 가장 잘 믿었던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받은 재판은 불의와 기괴투성이었습니다. 재판은 너무나 일방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변론조차 하지 못하고 심문은 끝나버렸고 형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겔롯과 나뭇가지를 길에다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임금님, 높은 곳에 호산나!” 하고 열렬히 환호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듯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고통은 가장 사랑

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고통이요, 진리를 저버리고 불의와 부정이 만연한 세상에 대한 한탄이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주님의 십자가상 죽음을 지켜준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을 지켜보며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라며 하느님을 찬양하는 백인대장, 예수님의 시신을 품게 모신 착하고 의로운 요셉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과 함께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외롭지 않고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사 중에 주님의 십자가 수난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엔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 유다, 저 살고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쳤던 사람들, 의로운 요셉과 주님의 임종을 지켜준 여인들 등 등. 참으로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맡을 것입니까?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 당신 때문에도 운다 -

나이 탓인지 몸이 아파 눈물을 흘리는 일보다
풍경을 보거나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잦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일 겁니다.
외로움 때문에 울고, 그리움 때문에 울고,
슬픔 때문에 우는 게
다 그런 연유가 아닐까 합니다.

◆글 : 이영 아네스 수필가

이번주(성지주일) 전례봉사자

이번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신덕래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영호 사도요한	김교복 래오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부활대축일) 전례봉사자

다음 주	부활성야미사	학생 미사	부활대축일미사
해설자	남성철 베네딕도	주일학교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제3독서자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1독서자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5독서자 제7독서자	이재용 안드레아 이혜선 안젤라		제2독서자 전하현 마리아
서 간	모은기 다두		제물봉헌 토런스 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1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수난
성지주일

예수님께서서는 바스카의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
오늘 당신의 도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수난을 앞두고 우리는 성 금요일
에 단식과 금욕으로 재를 지킴으로써 주님의
죽음의 신비속에 더욱 참여하게 됩니다.

- ◆ 성삼일(The Easter Triduum) 전례
 - 성 목요일 주님만찬 저녁미사 : 4월5일 오후 8시
(밤 10시부터 수난감실 성체조배)
 - 성 금요일 주님 수난예식 : 4월6일 오후 8시
(오전 6시까지 수난감실 성체조배)
 - +전신자 십자가의 길 : 오후 3시 야외14처
 - 성 토요일 부활 성야미사 : 4월7일 오후 9시
* 배튼청년회에서 부활초를 판매봉사합니다.
- ◆ 부활 대축일 미사(4월8일) : 오전 9시30분, 오전 11시
-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 : 성목요일 미사중에 봉헌합니다.

- ◆ 4월 성시간/성모신심미사는 성주간 전례관계로 없습니다.
 - 봉성체 : 4월5일(목) 오전 10시
-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일시 : 4월1일(성지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장/반장, 게시판 안내 참조
- 문의 :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부장 ☎(310)808-5005
- ◆ 4월 안나회 모임 임시변경
 - 일시 : 오늘 주일(1일) 낮미사후, 회의실
 - 문의 : 한준선 루시아 안나회 회장 ☎(310)738-4387
- ◆ 소년복사단 월례모임
 - 일시 : 4월7일(토) 오후 4시~6시
 - 장소 : 성당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복사단장 ☎(424)903-6637
- ◆ 성모회 부활절 행사 안내
 - 부활성야 : 미사후 전신자들과 생강차와 떡을 나눕니다.
 - 부활대축일 : 낮미사후 전신자들에게 부활축하점심으로 사골우거지국을 무료로 대접합니다.
 - 문의 : 최길숙 요세피나 성모회장 ☎(310)738-4788
- ◆ 백삼위 골프회 4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4월14일(토) 오전 9시
 - 장소 : Recreation Park 골프코스(롱비치)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골프회장 ☎(213)272-3598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1일(성지주일) : 소공동체(북어콩나물해장국 \$0)
부활맞이 대청소전에 전신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대접합니다.
* 주일학교(9학년 핫도그 & 나초)
 - 4월8일(부활대축일) : 성모회(사골우거지국 \$0)
* 주일학교(10학년 치킨 케사디아)

수난감실 성체 조배 시간표 - 4월5(성 목요일)/6일(성 금요일)

시간	담당 구역	시간	담당 구역
성 목요일 밤 10시 ~ 11시	성가대	성 금요일 새벽 2시 ~ 3시	토런스 남
성 목요일 밤 11시 ~ 12시	P.V.	성 금요일 새벽 3시 ~ 4시	토런스 서
성 금요일 자정 ~ 새벽 1시	하버 / 카슨	성 금요일 새벽 4시 ~ 5시	토런스 동
성 금요일 새벽 1시 ~ 2시	토런스 북	성 금요일 아침 5시 ~ 6시	구역외 / 전례부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금동균	금영도	김병태	김우용	김재영	성전헌금	고천용	금동균	금영도	김우용	김정희	김주량
	김정희	김주량	김충섭	김택수	김풍길	남성철		김충섭	김풍길	남성철	박기돈	서성용	신대식
	박기돈	서성용	신대식	안민수	엄지선	오신재		안민수	엄지선	이병우	이석진	이형삼	장훈수
	윤철	이병우	이석진	이소영	이재철	이형삼		조준제	최미열	한금순	홍광선		
	장훈수	조준제	주영식	최미열	한금순	홍광선							
합계 : \$3,990							합계 : \$2,560						
미사헌금 : \$2,834							감사헌금 : 홍숙자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시

- 시간 : 5월20일까지 매주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장소 : 신부님 집무실(성전입구)
- 교사 : 김정심 크리스티나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교무주임 (310)780-8895

◆ 부활절 은총시장행사 도네이션 받습니다.

본당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부활절 은총시장 행사(운동회와 카니발 축제)에 필요한 상품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뜻있는 교우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행사 일시 : 4월8일 부활대축일 학생미사후 친교장
오전 10시30분~오후 1시30분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시상식

지난 2월1일(수)부터 3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쓰기 시작한 성경경연대회가 3월31일로 마감됐습니다.

- 제목 : 요한복음(영어)
- 시상 : 부활대축일 학생미사 중(4월8일)

◆ 청년 전진성사

- 일시 : 5월26일(토) 오전 10시
- 리허설 : 5월18일(금) 오후 7시30분
- Reflection : 5월25일(금) 오후 7시
- 장소 : 성 마가렛 매리 본당
- 대상 : 10학년
- 신청마감 : 4월8일(주일)
- 문의 : 빈센트 신 견진담당 교사 ☎(424)903-6637

◆ LA한국교육원 주최 한국학교 교사연수

- 일시 : 4월10일~5월3일
매주 화, 목 오후 7시~9시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 대상 : 한국학교 한국어교사 및 교사 지원자
- 문의 : 김본경 올리아 ☎(310)713-2669

남가주소식

◆ 성모기사회 4월 성모신심미사 일정 변경

성주간 전례관계로 4월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가 둘째 토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일시 : 4월14일(토) 오전 10시 묵주기도와 함께
- 장소 : 성프란치스코 성당
- 문의 : 황광우 요셉 신부 ☎(310)380-1647

◆ 성골롬반 청소년선교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시 : 4월21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로열비스타 골프코스(20055 E. Colima Rd. Walnut)
- 참가비 : \$100 * 문의 : 최용훈 신부 ☎(323)388-7737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유현자 안나 320-3697 4/20(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213-718-9262 4/14(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아전향 아네스 989-0366	박인식 토마스 953-9597 4/15(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상원 야코보 370-8707 4/14(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이기숙 엘리사벳 650-1515 4/19(목)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최경숙 수산나 320-0855 4/20(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희자 마리아 634-6923 4/12(목) 오전 10시30분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이남현 막시모 213-272-3598 4/21(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오세원 아타나시오 327-8035 4/21(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박진수 스테파노 808-5005 4/14(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4/13(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안민수 베드로 544-8908 4/14(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김다니엘 892-1213 4/13(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도영옥 수산나 971-8866 4/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주 단체모임

구역장 /반장회의	휴회
-----------	----

다음주 단체모임

부활대축일(재단채모임의날)	
----------------	--

성주간의 의미

교회는 예수부활대축일 전 한 주간을 성주간이라 하여 1년 중 가장 거룩하게 보냅니다. 회개와 보속의 사순시기를 살아온 신자들은 이제 장엄한 '성주간' 전례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 의미를 강하게 체험합니다. 성주간은 모든 전례의 꽃 중의 꽃,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성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백성이 호산나(Hosanna, '구원하소서'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외치며 환호하던 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그 환호가 곧 배신으로 바뀌는 아픔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주간(월~수요일) : 특별한 예식은 없지만 말씀의 전례는 월요일에 머지않아 일어날 예수님의 장례를, 화요일에 가장 믿었던 제자들의 배반을, 수요일에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온 유다의 배반을 묵상합니다.

성삼일(목~토요일) : **성목요일** 오전에는 사제들이 주교좌성당에 모여 성유축성미사를 집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제직을 세운 것을 기념합니다. 이날을 사제들의 생일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주님만찬 미사를 봉헌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난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저녁식사로써 '성체성사'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미사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1,24) 미사 중에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며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것을 본받아 발 씻김 예식(세족례)을 거행합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요한 13,14)

미사 후에는 성체를 준비된 수난 감실로 옮기고 밤새워 성체조배를 하며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합니다.

성금요일은 인간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미사를 드리지 않고, 긴 수난기를 봉독하며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경배합니다.

성토요일(부활성야) 밤의 예식은 모든 전례의 절정을 이루며 가장 장엄하고 성대하게 거행됩니다. '빛의 예식'을 통해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느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장엄하게 봉독되고 세례 갱신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합니다. 환영과 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죽음의 공포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성주간 전례'에 마 음과정성을 다해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1코린 15,14)

◆서울대교구 주보 자료실

만우절

사순절도 이제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성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며, 주님 수난 성지 주일입니다. 세속적으로는 만우절이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다른 유래를 가지고 있지만, 프랑스에서 시작된 만우절 유래가 재밌습니다. 그레고리력(양력)을 받아들이기 전인 1564년까지 사람들은 4월 1일을 새 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샤를 9세 왕이 공식적으로 새해의 첫날을 4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4월 1일에 새해 축제를 벌이자, 그런 사람들을 '사월의 바보'라고 부르는 데서 만우절이 유래되었다는 설입니다.

아무튼 만우절은 장난으로 거짓말을 해도 나무라지 않는다는 날이지요. 만우절의 유래에 얽힌 이야기들을 생각하다 보니,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중들이 만우절의 주인공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사실 주님 수난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에 불과했지요.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환호하던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던 바로 그 군중들이었으니까요. 그 군중들은 누구보다 뻔한 거짓말, 아니 거짓행동들을 해도 부끄럼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이런저런 만우절 기사가 보도되곤 하지만 오늘 복음 말씀보다 더 놀랄만한 만우절 기사는 없을듯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어리석은 만우절 축제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크나큰 은총으로 '부활'이라는 사랑과 희망의 축제를 몸소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만우절 후일담으로도 들을 수 없을, 너무나 아름다운 해피 엔딩입니다. 부활은 우리 교리의 으뜸이자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만우절이 과거엔, 새해 첫날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성주간의 첫날이자 만우절인, 2012년 오늘의 달력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연치곤 기막힙니다.

<◆하창식 프란치스코 수필가>